

정원영  
조선대학교 병원  
신경과

## 뇌졸중의 여러가지 종류

모든 인체의 조직과 장기는 혈액순환을 통해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고 노폐물을 배출하여 정상적인 기능과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뇌는 크기가 1300g 정도로서 무게로는 전체의 2%정도밖에 안되지만 혈류의 20%정도를 공급받을 만큼 매우 중요한 기관으로, 뇌는 뇌혈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아야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노인에서 증가하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 등과 같은 만성질환은 여러 장기의 혈관에 동맥경화증을 유발하며, 특히 뇌혈관에 동맥경화증이 생기게 되면 혈관이 막혀 뇌혈류가 차단되어 뇌경색증이 발생하거나 뇌혈관이 터지게 되어 뇌출혈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뇌혈관의 급격한 변화로 뇌조직의 손상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신경마비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증상을 통틀어 뇌졸중 또는 중풍이라고 한다.

### 뇌졸중의 분류

뇌졸중은 크게 허혈성 뇌졸중인 뇌경색과 출혈성 뇌졸중인 뇌출혈로 나뉘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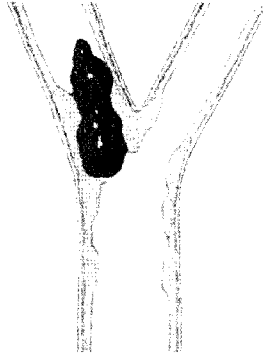
####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의 종류

뇌경색은 시간적으로 분류하면 발병후 24시간 이내에 완전히 회복되는 **일과성 뇌허혈 발작**, 발병후 1주일 이내에 거의 완전하게 회복되는 **가역성 뇌졸중**,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진행성 뇌졸중** 및 발병 후 장기간 증상의 변화가 없는 **안정성 뇌졸중**으로 나뉘어진다.

원인별 분류로는 그림 1)에서와 같이 뇌동맥의 내벽에 발생하는 동맥경화로 좁아진 부분에 혈전(핏덩어리)이 달라붙어 뇌혈관 자체가 막히는 **혈전성 뇌경색**, 심장이나 큰 동맥에서 생긴 혈전(핏덩어리)이 떨어져 나온 색전이 뇌혈관을



그림 1) 색전성 뇌경색증



혈전성 뇌경색증

막아 발생하는 색전성 뇌경색 및 소혈관이 막혀 나타나는 열공성 경색증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림 1) 우측은 혈전이 점차 커지면서 혈관을 막게되어 발생하는 혈전성 뇌경색증이고 좌측은 혈전이 떨어져 나가 좁은 곳에서 막히는 색전성 뇌경색증의 모식도이다.

###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의 종류

뇌출혈은 그림 2)와 같이 고혈압 환자에서 혈압이 갑자기 높아질 때 혹은 동정맥기형 등의 혈관질환이 있는 경우 발생하는 뇌실질내 출혈과 동맥류(혈관파리)가 터져 생기는 지주막하 출혈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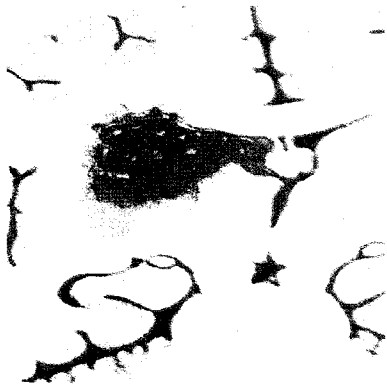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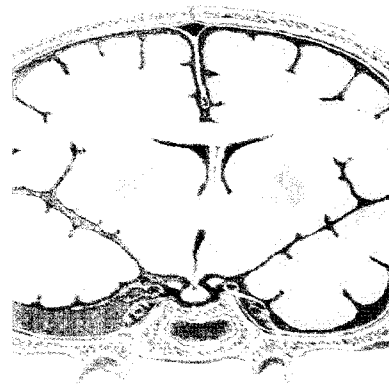


그림 2) 뇌실질내 출혈



지주막하 출혈

그림 2) 좌측은 뇌실질내 출혈이 일어난 모습이고, 우측은 뇌를 둘러싸는 지주막하 출혈 모습이다.

지금까지 뇌졸중을 시간적, 원인별로 분류해 보았다. 이제부터는 각 종류의 자세한 증상에 대해 알아보자.

### ※ 일과성 뇌허혈 발작

일과성 뇌허혈 발작은 일시적인 뇌혈류의 감소로 인해 뇌경색증의 증상이 수 분에서

수 시간 이내 일시적으로 왔다가 완전히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현상으로서 수일 내지 수주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면 향후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경고이고 전조증상이기 때문에 결코 방심해서는 안된다. 곧바로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만 뇌경색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 혈전성 뇌경색증

혈전성 뇌경색증은 혈관내벽이 죽상경화증 등에 의해 막힘으로써 발생하기 때문에 증상이 수 시간 내지 수 일에 걸쳐 서서히 단계적으로 악화가 되는 경우가 많다. 주로 노인들에서 수면 중에 발생하며, 50~75%에서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 흔히 전구증상으로 나타나는 점이 색전성 뇌경색증과 다르다. 죽상경화증의 선행요인인 고혈압, 당뇨병 등의 위험인자를 흔히 동반하며, 경부 청진시 뇌혈관 부위에서 잡음을 들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 ※ 색전성 뇌경색증

색전성 뇌경색증은 심장이나 혈관에서 형성된 혈전이 떨어져 나온 색전이 뇌혈관을 막아 발생하며, 증상이 초기에 가장 심하지만 빠른 회복을 보이기도 한다. 이 때 30~50%에서는 막혔던 혈관부위에서 출혈이 일어나기도 한다. 과거에는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젊은 환자들에서 많았지만, 최근 부정맥이 흔한 노년기 심장질환자들에 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 ※ 열공성 경색증

열공성 경색증은 혈전성 뇌경색증과 마찬가지로이지만, 뇌의 중심부에 위치한 작은 관통동맥이 막혀 발생한다. 임상증상이 전혀

없는 무증상성 뇌경색증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한쪽에 운동 혹은 감각마비만 있는 편마비나 편감각장애, 그리고 운동실조성 편마비, 구음장애, 가성연수 증후군 등의 특징적인 증상을 보이며 비교적 예후가 좋은 중풍의 일종이다.

#### ✧ 뇌실질내 출혈

뇌실질내 출혈은 대부분 고혈압에 합병되어 나타나며 출혈의 정도와 속도에 따라 신경증상이 다를 수 있으며 사망은 2주 이내의 급성기에 80%가 일어난다.

#### ✧ 지주막하 출혈

지주막하 출혈은 선천성 기형인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나타나므로 젊은 연령층에서 호발하며, 대부분 갑작스런 두통과 더불어 의식장애, 반신마비 등이 나타나고 경부강직, 구토 등의 뇌압상승 소견이 흔히 관찰된다.

#### 뇌졸중의 증상

뇌경색증이나 뇌출혈 모두 뇌신경 손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은 유사하지만, 뇌출혈 환자에서는 뇌압이 초기에 상승하기 때문에 두통이나 구토증상이 발병초기부터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뇌졸중은 일반적으로 흔히 팔다리의 마비증상만이 뇌졸중의 증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 도중 갑자기 나타나면 일단 뇌졸중을 의심해서 빨리 병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 ▶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발음이 흐려지는 구음장애
- ▶ 제대로 삼키지를 못하고 사레가 드는 연하장애
- ▶ 한쪽 팔이나 다리의 감각이 둔해지는 감각장애
- ▶ 물체가 두개로 보이고 시야가 좁아지거나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
- ▶ 어지럽고, 쓰러지고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는 평형기능장애
- ▶ 갑작스런 격심한 두통과 이어 동반된 오심, 구토증상
- ▶ 갑작스럽게 말을 할 수 없거나 상대방의 말을 이해 할 수 없는 언어장애
- ▶ 갑작스런 전신경련발작
- ▶ 혼수 등의 의식장애 등